

I. 미카서

1. 인물

‘미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미카야후’ 혹은 ‘미카예후’의 줄임말로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라는 뜻이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모레셋(1,1) 출신인 그는 시골 출신답게 농부와 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의 귀족층을 고발한다(2,1-5 ; 3,1-4). 아모스서와 유사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1장 1절은 미카 예언자의 활동시기를 ‘유다 임금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로 소개하고 있다. 이 시기는 기원전 740-687년에 해당되지만 미카가 실제로 이 시기에 활동했는지는 증명할 길이 없다. 미카서 자체가 특수한 사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몇 해 동안의 상황만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1,2-7의 내용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이란 점, 그리고 701년에 있었던 산헤립의 침공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가 활약한 시기를 기원전 725-701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2. 신학적 메시지

타락한 도시와 지도층을 향한 심판 : 예언자는 탐욕과 불의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대도시의 구조적 악을 규탄한다(2,1-2 ; 3,1-4 ; 7,3-4). 그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대중의 피를 빨아 세운 도시’(3,10)로서 사회적 불의가 난무하는 곳이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미카서에 제시되고 있는 일관된 주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시는 하느님의 분노가 오롯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서는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하느님이시기에 그들을 “가없이 여기시고 허물들을 모르는 체해주실” 것임을(7,8-19) 언급하며 마무리한다. 특별히 미카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한 듯한 구절(5,1)로 유명한데, 여기에서 그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다윗의 출생지)에서 나실 것임을 선언한다.

II. 스바니야서

1. 인물

스바니야란 ‘하느님이 숨겨주다’ 또는 ‘피신시켜 주다’ 라는 뜻이며 이를 히브리어 발음으로 읽는다면 ‘체판야’이다. 1장 1절에 제시된 그의 족보는 그가 왕가의 혈통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이는 왕족이나 기득권자들의 죄악을 서슴없이 고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1장 1절에 보면 그가 요시아 왕 시대에 활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히 요시아 개혁(622년)이전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그가 고발한 왕족들의 부패(1,8-9), 우상숭배(1,4-7) 등은 요시아 개혁 이전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기 때문이다.

2. 신학적 메시지

주님의 날과 남은 자 : 스바니야서가 신학적 축으로 삼고 있는 두 개의 모티브는 묵시문학적인 소재인 ‘하늘’과 주님의 겸손한 이들이 소유하는 ‘땅’이다. 이는 곧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한가운데에’ (땅) 계심을 부각시키는 모티브이기도 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스바니야는 정의의 하느님을 배신하고, 이방인들이 믿는 신을 섬기며, 온갖 불의와 악한 일을 저지른 유다인들에 대하여 하느님의 분노와 심판을 선포한다. 그리고 ‘주님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참된 사람들(‘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부각시키면서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거짓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이들의 삶, 겸허하게 주님을 섬기며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구원의 구체적인 길임을 강조한다.

III. 나훔서

1. 인물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인 나훔에 대해서는 고향이 ‘엘코스’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유다에 대한 민족주의적 신탁을 말한 것으로 보아 남유다 출신이며 성전 활동에 정통했던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 '나훔'이라는 이름은 '나훔야'의 줄임말이며, 이는 '하느님께서 위로하시다' 혹은 '하느님의 위로'라는 뜻이다. 이름에서 암시하듯 이 나훔서는 고통 중에 있던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을 억압했던 니네베의 종말(612년)을 생생히 묘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잔인하고 호전적인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도 약 100년간을 간섭하고 다스려 왔지만 점차 그 세력이 기울게 되고, 기원전 625년에는 메대와 바빌론의 공격을 받고, 612년에는 수도 니네베가 멸망하면서 609년 바빌론군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안에서 나훔 예언서는 니네베의 멸망을, 유다를 억압하고 괴롭혀 온 아시리아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로 소개한다. 곧 온 우주의 창조자요, 공의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자신들의 힘을 남용하는 악한 세력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신학적 사상을 니네베의 몰락을 통해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2. 신학적 메시지

공의로우신 하느님 : 나훔서가 다른 예언서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자기 민족의 타락을 고발하기보다 하느님께 받은 힘을 악용하는 '악한 권력'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예언자는 타인의 존엄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인간을 억압하는 권력층의 어리석음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대항하는 일종의 도전으로 보며 이를 질타한다. 공의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개인이든 국가든 바르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분의 벌을 주신다는 진리가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나훔서는 불의한 자에게는 정의의 활을 당기시고, 옳은 자에게는 마지막 안식처가 되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위로'로 소개하고 있다.

IV. 하바궤서

1. 인물

'하바궤'이라는 히브리어는 '포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하바궤'에서 파생되었다. 마음과 팔로 자기 민족을 감싸 안으며 그들에게 기운을 북돋워 주고자 한 예언자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름이다. 하바궤 예언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성경 어디에도 전해지지 않는데 다만 다니엘서(제2경전 부분인 다니 14,33-39)에 잠시 등장할 뿐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언자에 대한 본래적 자료라기보다 하바궤서가 이미 대중에게 유포된 가운데, 이 책이 가지는 전통적 가치를 후대 저자가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하바궤서는 예레미야서와 동시대적 배경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곧 아시리아가 신흥 세력인 바빌론에 의해 파국을 맞고, 네부카드네자르가 고대근동을 장악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신흥 바빌론은 유다에도 강력한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에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던 유다의 임금 여호야קים은 유다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하바궤서는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대화와 찬미가의 양식으로 제시한다.

2. 신학적 메시지

불의로 말미암은 고통 : 하바궤서는 처음부터 삶의 모순에 대한 도전적 질문으로 시작된다. 왜 하느님은 불의와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순을 방관하고 계시는 듯한가 등이 처음부터 예언자가 제기한 질문이었다(1,2-4). 이에 대해 하바궤서가 강조하는 신학적 메시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인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 끝까지 신앙에 항구 하라는 것이다(2, 2-4).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과시하던 세계의 열강도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한 그 기세가 지속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하바궤서는 하느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면서 신앙의 절대적 가치를 다시금 천명해 준다.